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2026년 4월 요셉의 창고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스라엘 소식과 기도제목

1. 부림절에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2주간의 휴전으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2. 이스라엘, 이란 등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3.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란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4. 이란과 잠시 휴전하지만 여전히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 요셉의 창고 소식 및 가정 기도제목

저희 가정은 지난 겨울부터 엄청난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한 진통을 겪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8-9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난 우리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게브 광야로, 네게브에서 북쪽 이스라엘 평야로, 이제는 다시 북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 과정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뜻

과 계획 가운데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또 한번 믿음의 여정을 견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월에 끝나는 비자, 사역의 방향, 유환이의 학교와 축구팀, 새로운 집 이사 등 여러가지 정해지지 않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따르자면 비자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모든 상식적인 일의 순서가 모두 무너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일들이 정리되어지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 되었어야 할 비자는 결국 비자 수속을 밟고 있던 중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3개월 자동 연장이 되었고, 아직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마무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전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스라엘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1. 비자

지금은 자동 연장된 임시 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속히 정식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사역

- 러브153 Israel Korean Academy(IKA, 이카)

이스라엘 교육청과 계속 조율하며 교재 제작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를 맡아서 진행을 할 정승은 스기스에 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기도해주세요.

- 러브153 비즈니스 미션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사역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요셉의 창고,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기도 / 구제 공홀

말씀의 기근의 때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며, 구제 공홀 사역을 지속합니다.

-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책을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저희 가정

모두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 주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에덴이와 유환이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어 이를 향해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는 정승은 사모에게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항상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이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 가정 후원: 하나은행 170-910173-11207 (신동훈)

* 구제공홀 사역 후원: 하나은행 170-910080-73307 (정승은)